

	<b>보도설명자료</b>	
	배포일시	2019. 10. 22.(화) / 총 1매(본문 1)
국토교통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시재생정책과장 정우진, 사무관 윤성업</li> <li>• ☎ (044) 201-4904</li> </ul>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서울 강북 등 대다수의 지역에서  
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한국경제TV, '19. 10.22(화) >

- ◆ “강남되고 강북 안되고”...도시재생 뉴딜 ‘이상한 선정기준’
  - 강남권 대부분 지역은 신청 가능하고, 강북권 상당수 지역들은 사업 신청조차 할 수 없었음

- '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, 서울 광진·서대문·동대문·은평·강북·중랑·도봉·노원 등 강북지역 대다수 자치구 뿐만 아니라, 강서·구로·관악·금천 등 서울 관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신청이 가능하였으며,
- 이중에 동대문 2곳, 도봉구 1곳, 양천구 1곳, 동작구 2곳, 관악구 1곳 등 총 7곳이 선정되었습니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 <small>윤치영</small>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윤성업 사무관(☎ 044-201-49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-